

지방자치·종합

親朴 ‘백의종군’한다는데 親盧는

“朴집권시 임명직 안 맡겠다” 논의에 민주 핵심 행보 주목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집권 후에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이른바 백의종군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통합당의 친노(친노무현)계 핵심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1일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강연에서 “박 후보 집권 시 백의종군의 연장선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을 비롯해 이주영 특보단장, 이학재 비서실장 등 중앙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집권 시 백의종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유정복·홍문종·윤상현 의원 등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승리가 우선이란 명제 속에 이 같은 선언에 동참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본부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친박계 의원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학재 실장은 “측근들이 집권 후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적인 선언을 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친박계 인사들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 분위기가 전해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 핵심인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 핵심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호남

에서 문제인 후보의 지지율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호남 소외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의미에서 친노 핵심세력의 백의종군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새누리당 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적인 선언을 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친노 핵심인사들도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1일 “친노 핵심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친노 일부 세력 등이 2선 후퇴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들은 “계파를 없애자면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 후보의 비서 출신인 권노갑·한화갑·김옥두·남궁진·최재승·설훈·윤철상 의원 등은 “집권 시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직을 포함한 어떠한 주요 임명직 자리에도 나서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가신정치”, “측근정치”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취지였다. 당시 동고동계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은 이후 DJ 당선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安 ‘내대·봉변’ (왼쪽 사진)과 안철수 후보에게 달려들어 돌발시위를 하는 모습. /연립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찾았다.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사진은 보수성향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돌며 인사를 나누던 문 후보

안지지 ‘광주·전남 진심포럼’ 창립

범희승·강계두·정남준 등 참여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진심포럼’이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 상임대표는 전남대 범희승 교수가 맡았고, 강계두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남준 전 행사부 차관, 장송지 목포 주부클럽 부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찾았다.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사진은 보수성향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돌며 인사를 나누던 문 후보

광주NCC 등 MB정권 정면 비판

‘광주기독교인 선언’ 사회를 불신과 양극화로 갈라놓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조 폭력진압, 대북정책, 언론장악, 4대강 사업,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을 사안별로 비판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서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생태계를 이윤과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4대강 사업 등 개발주의 경제정책을 반대한다”며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생명의 다양성이 남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NCC 등 MB정권 정면 비판

민주, 선대위원 임명장 퍼주기?

광주 500명·전남 1000명 넘을 듯 지역 민심 접근보다 양적 공세 지적

민주통합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오는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선대위원 임명장 퍼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시·도당이 구성하고 있는 당 중심의 광주·전남 선대위 간부는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접근보다는 양적 공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과 조율을 통해 오는 25일 광주와 전남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중 시·도당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민주캠프에는 각 시·군·구까지 포함해 1500여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시·도 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 간부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당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직 군수·시장과 전남도의원들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시·군의회의장들과 부원들을 전남 22개 시·군별 지역 선대위 간부들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 홍보위원, 정책위원, 조직위원 등까지 합하면 전남지역 선대위 간부만 어림잡아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당도 시당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8개 각 지역 위원회별로 민주캠프를 구성 중이다. 각 지역위원회별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까지 선대위 간부들을 임명할 계획이다. 따라서 광주지역에도 시장 중심의 민주캠프 간부들이 적혀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한 지역위원회 간부는 “지역 위원회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다다익선”이라고 해 가능하면 많은 인사들을 선대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뜨겁지 않아 30~40명 선에서 선대위 간부를 임명할 희박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뒤흔친 채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선대위만 매머드급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선대위 임명장만 남발한다고 해서 바다 민심을 잡을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민캠프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및 비정치적 인물 15명 안팎으로 공동위원장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캠프는 캠프를 이끌 조직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을 두고 50여 명의 포도수익자 등 100명 내외의 ‘시민정치참여형’ 공조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동 대표단에는 ‘혁신과 통합’의 최철재가 거론되고 있으며, 주부발명가 김은자, 가수 김원중, 전 재계 협회장 출신 송갑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감동적인 후보 단일화 위해

광주시민단체, 文·安에 ‘토크 콘서트’ 제안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이른바 ‘문안드림 토크 콘서트’를 두 후보에게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두 후보 측에 문서로 공식 제안했으며, 토크 콘서트 개최를 위한 추진회의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문안드림 토크 콘서트’는 ‘광주의 힘, 정치혁신, 정권교체’라는 주제로 이달 25일~31일 사이에 후보들의 일정을 조정, 추진될 방침이다. 토크 콘서트의 주요 내용은 각 후보의 출마의 변, 주요정책,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의지 등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문안인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 文·安에 ‘토크 콘서트’ 제안

광주시민단체, 文·安에 ‘토크 콘서트’ 제안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수 수요일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 문의 062-352-8589

이지공인중개사. 판니다..토지,전담,임야등. 광주 신기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390만 / 전화 : 062-268-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원, 사무실 적합 / 010-9731-8949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T. 062) 371-1900

가은 공인중개사. ☆전남지역☆ 영업장(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 (FAX)223-1772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 010-3622-6076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 (FAX)3833-5221